

# 양 종 합 배

원일산업부부영



서지영

양주지회 운영위원장

## 설비인들 뜰뜰뭉쳐 난관헤쳐 나가길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돋기에도 열심

#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절, 신용, 완벽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의 정통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구축

양주지회 서지영 운영위원장은 1985년부터 시공업계와 인연을 맺어 20여년동안 설비업에 종사하던 중 2002년 태양종합배관을 설립, 소규모의 설비업자들을 위해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장배관 및 산축건물의 공사 및 직납 업무를 하고 있는 태양종합배관은 밸브 전문점답게 단조밸브, 주강밸브, 소현밸브, 주철밸브, 소방밸브 등을 취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배관자재도 취급하고 있는 종합 설비 전문점이다.

장영렬 양주지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은 서 운영위원장은 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지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무자격자 및 설비인이 되고자하는 준비생들을 위해 온수온돌 기능사의 연습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양주지회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업체 운영의 가장 어려움 점은 무엇입니까?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위축. 이로 인해 얼어붙은 설비시장은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재상들에게도 영향이 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원자재 업체들의 상술로 자재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큰 규모의 유통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같은 소규모의 유통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불황극복법이나 회사의 운영 방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자재들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자없이 완벽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제품들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몇 년간의 불황은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이럴때 일수록 단기적인 상술로 불황을 타파해 나가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친절, 신용, 완벽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의 정통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삼아 소비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

다.

또한, 설비 현장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태양종합배관과 일을 함께하면 모든일이 일사천리로 처리된다 는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시공업계에 알려져 이제 지방업자들이 양주지역에서 공사를 실시할 경우 태양종합배관에서 물품을 공급받는다.

최근 지부지회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근 설비업이 어려움을 지속되다보니 회원들이 월례회의 등 협회관련 일에 불참하는 회원의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어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부지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지회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이 단편적인 것만 생각해서 일어난 결과다.

어려울 때일수록 설비인들이 하나가되어 불황을 이겨나가야지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않된다.

협회는 회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업역학대와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야하며, 회원들도 협회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더 많은 신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불황을 타파하여, 협회에서 주는 고기만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특별한 자신만의 영업 전략을 세워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해 나아가 설비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주지회의 대민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동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돋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었다.

지회장을 선두로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과 함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춥고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BN